

화순백신평구 중심 '면역' 특화...미래 바이오산업 선도

전남, 첨단바이오산업 세계적 거점으로 키우자

〈하〉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거점 구축

전남도가 새로운 개념의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조성에 나선다. 의료 수혜자들이 있는 병원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면역'에 특화된 새로운 개념의 첨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11년 전인 2009년 지정된 오송-대구의 1차 첨복단지가 의료·의약 기술 개발 지원에 그쳐 산업계로의 성과 확산이 부진했던 반면, '전남형' 첨복단지는 코로나 19, 고령 인구 급증, 자연 치유에 대한 관심 고조 등 급변하고 있는 의료 여건을 반영하고, 임상과 연계한 의료·의약 산업생태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백신·면역·의료인프라 육성
임상 연계 의약 발전 생태계 제시
바이오·치유·메디컬 자원 융복합
부지 확보 쉽고 우수인력 집적
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비교우위
오송-대구-화순 3각축 완성
국가균형발전 크게 기여할 것**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백신, 면역치료, 재생의료 등과 관련된 기반 시설 및 연구 인프라를 꾸준히 갖춰오면서 그 역량을 키워왔다는 것이 전남의 가장 큰 장점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 바이오올러스

터, 일본 오사카 바이오메디칼센터, 중국 베이징 생명과학단지 등 세계적으로 면역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면역에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전남의 풍부한 바이오·치유 자원과 메디컬 자원을 융복합해 감염병 및 중증질환 백신·면역 치료에 특화된 국가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면역 중심 의로서비스 산업 육성형 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밑그림도 완성했다. ▲면역특화 의료·의약 연구 인프라 구축 ▲면역치료 의약·의료기기 연구개발 ▲면역기반 치료·치유 과학화 연구 등 3대 핵심과제 14개 사업에 모두 1조 237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중증질환 면역치료연구센터', '국가 백신·면역셀뱅크', '면역세포치료 전임상연구센터' 등 면역이 중심이 된 병원중심의 기반시설을 구축해 '면역

항암제 치료기술', '알츠하이머 면역치료제', '심뇌혈관 줄기세포 치료기술', '차세대 백신 약물전달체 제조공장', 'AI기반 차세대 예방·치료백신 및 진단기술', '빅데이터 기반 환자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치료치유 과학화 연구센터 구축, 천연물 활용 연구, 산림해양치유 과학화, 환자 중심 치유프로그램 개발, 면역세포치료 전문임상센터 구축 등도 사업에 포함돼 있다.

전남도는 부지 확보 및 확장이 쉽고,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및 연계가 우수하며, 바이오헬스산업 혁신기관 및 우수인력들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화순·광주·나주 등의 도시인프라 공동 활용으로 우수한 정주여건 제공, 다양하고 신속한 접근성, 지자체의 확고한 행·재정적 지원 의지 등도 비교우위에 있다.

'전남형' 첨복단지가 추진된다면 면역항암제 개발 편의 5633억원, 암치료 관련 건강보험 재정지출 감소 9646억 등 편익 창출 규모만 1조 5279억원에

달한다.

기존 첨복단지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국가의료산업 육성 플랫폼을 완성을 완성하면서 오송-대구-화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3각축을 완성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전남의 '블루 바이오' 프로젝트가 완성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7만개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새로운 첨복단의료복합단지는 실사용자(병원, 환자) 중심으로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의료·의약 연구개발 및 신약 기술개발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며 "전남은 국내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의료인프라를 활용해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식 기자 chadod@kwangju.co.kr

광주~부산 2시간 주파 고속도로 민주당 대선 공약 되나

14일 광주시·지역국회의원 당정협
광주~강원도 철도 대선 공약 논의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가 광주-부산을 2시간대에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광주와 강원도를 철도로 잇는 등의 대선 공약 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열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선정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영호남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광주-부산고속도로의 경우 대선공약 채택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국회의원-광주시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설명과 대선공약 발표 등을 협의한다.

특히 기재부·행안부·국토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광주·전남도가 참여하는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협의체의 후속 대책도 이날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가장 눈길을 끄는 대선 공약 안은 광주-부산고속도로다. 광주시는 기존 광주대구고속도로와 연계하면 광주-부산고속도로의 건설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기존 광주-대구고속도로 함양분기점에서

부산을 잇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함양과 경남도 일대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른 노선도 있어 이들 신규 노선과 연계한다면 광주-부산고속도로의 건설비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고속도로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광주시는 충북 제천에서 강원도로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해 광주-제천-강원도를 잇는 '강호선' 건설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정치권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회에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 등의 사업이 내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광주유치 계획 발표 후 기획 연구용역과 유치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해 TF팀을 구성했고, 매월 2차례 기획회의를 열고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자기장연구소는 국가 3대 거대 연구시설의 하나로 해외 선진국들도 국가 고자기장연구소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탄생했지만 책임감 있는 추진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을 대선 공약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향후 정치권과 지역에서 이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미첼 바첼렛 유엔 인권최고대표, 에밀리아 사이즈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 시장 등과 화상회의를 갖고 미얀마 사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세계지방정부연합,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성명 낸다

이시장, 유엔 인권최고대표 영상회의

광주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지난 6일 오후 화상회의를 갖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운동 지지, 미얀마 국민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이날 화상회의에는 미첼 바첼렛 UN인권최고대표, 에밀리아 사이즈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 시장, 모르텐 사예름 라울발렌베리 인권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이 시장은 "심각해지는 미얀마 상황이 41년 전인 1980년 5월 군부 세력에 대항한 광주의 민주화운동과 닮았다"면서 "지금 광주에서는 100여개의

단체들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와 민주화 지지 광주연대를 구성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광주 거주 미얀마인들과의 간담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결과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계지방정부연합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특히 "미얀마 군부 규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 미얀마 군부가 완전히 고립돼 있다는 인식을 주면 좋겠다"면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회원도시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촉구하며, 미얀마 민주정부를 인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제안을 경청한 미첼 바첼렛 UN인권최고대표는 미얀마 사태의 상황과 지금까지 유엔이 취한 조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광주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의 미얀마 국민 연대활동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UCLG 회원도시들이 미얀마 국민 인권보호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면 적극 지지 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밀리아 사이즈 UCLG 사무총장과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 시장, 모르텐 사예름 소장도 UCLG 차원의 공동성명서 발표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미얀마 국민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조만간 이들 단체와 공동성명서 조안을 작성해 참여 도시의 서명을 받은 뒤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